

경제위기에 따른 피복비 지출 변화 분석

이 미 영

울산대학교 생활과학부 의류학전공

The Effect of Economic Crisis on Korean Households' Clothing Expenditure

Mi Young Lee

Dept. of Clothing & Textiles, University of Ulsan
(2004. 2. 25. 접수)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1997 economic crisis on Korean households' clothing expenditures at different income levels. The raw data sets from the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of 1994, 1996, 1998, and 2000 produced by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were used. Based on their income data, subject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upper-income (upper 30%), low-income (lower 30%), and middle-income (the 40% in between).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income, consumption expenditures (ConE) and clothing expenditures (CloE) of Korean households increased in 1996, decreased in 1998 and recovered in 2000. Although the proportion of ConE to income increased after the economic crisis, CloE/ConE decreased. Clothing expenditures displayed an asymmetric pattern over the economic crisis: the clothing expenditures decreased severely and quickly during the economic crisis, whereas they increased slowly during the economic recovery period for all three income groups. 2) Compared to other household expenditures, clothing expenditure patterns were unique and different from other household expenditures such as food, housing, and education expenditures. 3) In terms of clothing categories, the proportion of expenditures for outerwear decreased considerably compared to other categories after the economic crisis.

Key words: Clothing expenditure, Economic crisis; 피복비, 경제위기

I. 서 론

1997년 말 경제위기 이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는 가계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쳐서 가계의 실질소득을 하락시켰으며 이는 실질소비지출의 감소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러한 소득의 감소 및 그에 따른 소비지출의 감소는 소비지출 구조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예를 들어서 1998년 초의 가계 소비지출구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계 소비지출 중에서 내구재 소비

이 논문은 2003년 울산대학교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지출 비중이 줄었으며, 그 중에서도 피복비의 감소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한국소비자보호원, 1999).

소비자의 구매 행태를 분석하는 것은 소비자를 이해하는 기본 단계이다. 따라서 경제위기 전후의 가계 소득변동에 따른 가계 소비지출 행태가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이해하는 것은 소비자 행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한편 의류의 경우는 1997년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많은 의류업체가 도산하였고, 몇몇 의류 대기업들도 구조 조정을 통하여 자사 직매장을 매각하는 등 의류업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는 대출

이자 부담이라는 업계의 구조적인 원인 이외에, 소비자들의 피복비 지출 감소로 인한 판매 부진과 매출 감소가 중요한 이유였다. 또한 이로 인해 의류 시장의 규모가 줄어들고 섬유 관련 종사자의 실직을 초래하였다(한국의류산업협회, 1998). 따라서 경기 변동에 따른 소비자의 피복비 구매 행태를 분석하는 것은 소비자 측면뿐만 아니라 의류산업 측면에서도 시장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

피복은 가계 소비지출 구조에서 여타의 소비품목과는 달리 필수재이면서 사치재라는 이중적인 특성을 지닌다. 사치재로서의 피복은 다른 사치재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높을수록 지출이 증가하는 특성을 갖지만(유두련, 1991) 통상의 사치재(예: 보석류, 고가의 가전제품 등)들이 일부 소득계층에서만 소비되는 것과는 달리 피복은 대부분의 가계에서 일정 부분 사치재로서 소비된다는 특징이 있다. 생필품과 사치품은 경기변동 및 소득계층에 따른 지출변화에서 반대되는 특성을 갖게 되므로 경기의 호·불황에 따라 생필품의 소비지출 변화는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에 사치품의 소비지출 변화는 크다. 또한 일정한 시점에서 소득계층별로 보면 생필품은 소득이 낮은 가계일수록 지출비중이 큰데 비하여 사치품은 소득이 높은 가계일수록 지출비중이 증가한다.

생필품과 사치품이 경기변동 및 소득계층에 따라서 다른 지출변화를 보인다는 것은 피복 소비지출 패턴이 1997년 말 경제위기 전후에 어떤 변화를 보였는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소득계층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파악하는 데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경기변동 및 소득계층에 따른 피복비 지출 변화는 다른 소비재의 지출변화와는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피복비 지출 변화를 보다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다른 소비재의 지출 변화와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피복비의 세부 품목에 따라 지출 경향이 다를 것이다. 따라서 비목별 피복비 지출을 비교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경기변동에 따른 피복비 지출변화는 생필품적인 지출과 사치품적인 지출 사이에 다르며 이러한 차이는 소득계층에 따라서도 다를 것이다. 따라서 경기변동에 따른 피복비 지출변화는 소득계층별로 분리하여 비교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경제위기와 관련된 의류학 분야 논문 중에서 경기변동에 따

른 피복비지출 행태 변화에 관한 연구는 몇몇 존재하지만(정인숙 외, 1999; 지혜경, 이은영, 1999) 위에서 지적한 세 가지 측면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지는 못하다.

피복비 지출에 관한 정기적인 전국적 조사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시가계조사 외에 한국섬유산업연합회의 의류 소비 실태 조사가 있다. 이 조사는 매년 2,500 가구 패널의 피복비 지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패널조사이기 때문에 각 가계의 피복비 지출 추이를 살펴보는 데 적합하다. 또한, 이 조사는 피복비의 지역별, 연령별, 소득별, 유통채널별, 세부 비목별 지출 규모와 함께 소비자들의 평균 구매량과 구입금액과 같은 구매행동까지 다루고 있어 매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한다. 그러나, 의류소비실태 조사는 1998년부터 조사가 개시되었기 때문에 외환위기에 따른 피복비 지출 변화를 파악할 수 없고, 이 조사에 기초하여 매년 의류소비실태 조사 보고서가 발표되고 있으나 이 보고서에서는 각 비목별, 소비자군별(연령, 소득 등) 피복비 지출 경향과 같은 단편적인 사실만을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경제위기로 인한 소득 변화에 따른 계층별 피복비 지출 변화 행태를 파악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흔히 'IMF 사태'라고 불리는 1997년 말의 경제위기 전후 가계 피복비 지출구조의 변화 행태를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경기변동(정상기→침체기→회복기)에 따른 소득 변화가 가계 피복비 지출구조에 미친 영향의 다양한 측면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위기 이전, 경제위기 직후 불황기, 이후 회복기의 세 시기와 상·중·하의 세 소득계층별로 피복비 지출 규모는 각각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피복비 지출 변화는 식료품지출, 외식비지출, 주거비지출과 같은 다른 항목의 소비지출 변화와 어떻게 다른지, 피복비 지출의 세부 비목의 지출 변화는 서로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1997년 말 경제위기 전후의 국내소비지출 변화에 관한 연구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한국 경제는 IMF

구제금융 체제 하로 진입하게 되어 물가 상승, 금융 제도의 다각적인 개편과 대기업들의 구조조정 등으로 전체적인 국가 경제가 위축되었다. 특히 구조조정과 고용조정으로 인한 실업과 취업난 등은 가계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소득 감소로 인해 가계지출이 감소되었으며, 이러한 경제적 불안은 가정의 소비 수준과 소비패턴의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피복비의 경우 주요 지출감소 영역으로 나타났다(곽인숙 외, 1999; 한국소비자보호원, 1999; 이종성, 1998).

한국소비자보호원(1999)의 외환위기 전후 소비자 의식 및 행태 비교에 따르면 소득이 낮을수록 식료품비 지출을, 소득이 높을수록 자가용유지비 지출을 감소시켰다. 또한 대부분의 응답자는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생활비를 줄였다고 응답하였고(81.3%), 감소시킨 생활비는 잡비, 외식비, 식료품비, 피복비의 순으로 나타났다. 감소시킨 생활비를 성별로 보면, 여성의 경우 식료품비와 피복비 지출을 감소시켰고, 남성은 잡비와 교제비 지출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성(1998)의 연구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식료품비, 경조사비, 신문·잡지 구독비, 저축, 자녀 과외비는 지출을 감소시키기 어려운 비목으로 나타났고, 외식비, 피복구입비, 에너지비용, 문화레저비 등은 소비자들이 지출을 감소시키고자 한 비목이라고 보고하였다.

곽인숙 외(1999)는 외환위기 이후 외식비와 피복구입비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1997년 말 경제위기 전후의 소비지출 변화에 관해서 두경자(1999)는 편의 표집에 의한 설문 조사를 통하여 경제 위기 이후 주부가 인지한 피복비를 포함한 가계 소비 수준은 이전에 비해 낮았는데 특히 경제적으로 안정된 가계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자산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경제 위기 이후의 소비 수준을 낮게 인지한다고 하였다.

경제 위기 이전인 1997년과 이후인 1998년의 도시 가계연보 원자료를 이용하여 경제 위기 이전과 이후의 가계소비지출 패턴 변화를 살펴 본 소연경(2000)의 연구에 따르면 모든 소득계층에서 가계소비지출의 전체 액수는 감소하였으나, 각 품목별 감소율은 소득계층별에 따라 달랐다. 예를 들면 식료품의 경우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의 감소 비율이 더 컸으나, 피복 및 신발, 교육, 교양오락 등의 항목에서는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감소 비율이 더 크게 나타났다.

2. 피복비지출 행태에 관한 연구

국내 피복비 관련 선행 연구는 크게 피복비 지출의 추이를 보는 연구와 피복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

<표 1> 피복비 관련 선행 연구

저자	연도	연구 내용	분석 자료/자료의 특성	
김영숙, 왕인숙	1989	- 소득 계층별, 직업, 가구원수에 따른 피복비 소비 지출 - 가구주의 연령별 피복비의 소비지출 구성비. 소득 탄력성 계수 - 한국/일본의 피복비 소비 지출 비교	도시가계연보 시계열 자료 (1963-1987)	가공 (집단) 자료
정수진, 이은영	1997	- (전체) 소비자 피복비 지출 구조 변화 - 도시 소비자 피복비 지출 구조 변화	국민계정, 도시가계연보	
지혜경, 이은영	1999	- 피복비 소비 지출 추이 - 79-98년간 경기 변동에 따른 피복 소비 지출 변동 형태(전체, 각 비목별) - 피복 소비 지출에 대한 경기 변동의 영향 여부 및 영향 정도	국민계정, 한국통계월보 (1979-1998)	
배미경, 박광희	1997	- 소득에 따른 피복비 변화 양상 - 인구 사회학적 요인이 피복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1994 도시가계 기초자료	개인별 원자료 (raw data)
박광희, 배미경	1997	- 피복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계층변수 - 사회계층에 따른 지위 불일치가 피복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1994 도시가계 기초자료	
정인숙 외	1999	- 경제위기 이전과 이후의 가정생활상태(의생활, 식생활, 가정관리) 비교 - 가정생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편의표집에 의한 설문조사	
Shim, Cho	2000	- 경제위기가 경제적 스트레스, 의류관련 라이프스타일, 소매점포 애고행동에 미치는 영향	편의표집에 의한 설문조사	
Park, Widdows	2001	- 의류 비목별 피복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997 도시가계 기초자료	

인에 관한 연구로 나누어 질 수 있다. 피복비지출에 관한 국내 논문은 <표 1>에 정리되었다.

경제위기와 관련된 의류학 분야 논문은 경제위기의 의복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김수경 외, 1998; 양지연 외, 2001), 라이프 스타일과 같은 사회심리학적 변인과 점포 애고 행동에 미치는 영향(Shim & Cho, 2000) 등을 많이 다루고 있다. 이에 비하여 경기변동에 따른 피복비지출 행태 변화에 관한 연구는 몇몇 존재하지만(정인숙 외, 1999; 지혜경, 이은영, 1999) 전반적으로 그리 많이 수행되지는 않았다. 정인숙 외(1999)의 전북지방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경제 위기 이후 의복구입이 감소하였으며, 품목별로는 정장류와 악세서리류의 구입이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속옷과 아동복 품목은 의복비목중에서 경제위기의 영향을 가장 덜 받은 품목으로 나타났다. 또한 드라이클리닝 횟수가 가장 많이 감소하였으며, 경제위기에 따른 대처 방안으로서 새로운 의복 구입을 줄였으며 그 경우에도 가격이 싼 의복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79-1998년 기간의 시계열자료를 분석한 지혜경, 이은영(1999)에 따르면 피복비 지출은 경기 변동에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소비지출 보다 경기변화에 더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 호황보다는 불황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복비목별로 살펴보면, 특히 의의와 신발의 소비지출이 다른 비목에 비해 경기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논의한 선행 연구를 살펴볼 때, 본 연구와 선행 연구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인 경기변동에 따른 피복비 지출을 다룬 논문(지혜경, 이은영, 1999)과 경제위기 직전과 직후의 피복비를 포함한 소비지출을 살펴본 논문은 있었으나(정인숙 외, 1999), 회복기를 포함한 경기변동에 따른 소득 변화가 가계 피복비 지출구조에 미친 영향의 다양한 측면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는 미흡한 면이 있다. 또한 1997년의 경제위기는 통상적인 경기변동에 따른 경기 불황과는 달리 소비자들에게 큰 충격을 가져온 “사태”로서 소비자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므로 1997년 외환위기가 도시가계의 피복비 지출에 미친 영향을 여러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경기 변동과 피복비 지출을 다룬 선행연구는 가공(집합) 자료를 이용하거나(지혜경, 이은영, 1999) 한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 편의표집을 이용하여(정

인숙 외, 1999)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개인별 자료인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피복비에 대한 소비지출을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문제

경제위기 이전, 경제위기 직후 불황기, 이후 회복기의 세 시기와 상·중·하의 세 소득계층별로 다음 연구 문제를 살펴보았다.

첫째, 피복비 지출 규모(절대액, 가계소득 중의 비중, 가계소비지출 중의 비중)는 각각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둘째, 피복비 지출 변화는 식료품지출, 외식비지출, 주거비지출 등 다른 항목의 소비지출 변화와 어떻게 다른가?

셋째, 피복비 지출의 세부 비목(의의, 내의, 신발 등) 지출 변화는 서로 어떻게 다른가?

2. 분석 자료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1994-2000년 기간 동안 격년으로 개인별 자료(micro data)인 도시가계조사 원자료(raw data)를 통계청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이 자료는 연구자가 본 연구를 위하여 수집한 것이 아니므로 2차 자료를 이용한 것이다. 하지만, 통계청에서 이를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로 분류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분류에 따라 도시가계 원자료라고 칭한다). 통계청에서 매년 수집하는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는 1963년 이후 전국의 도시거주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표본가구를 층화 및 확률비례 추출하여 소득과 비목별 소비지출을 조사한다. 비목별 지출은 피조사원의 가계부 가장 방식을 이용하고, 가계소득, 가구원수, 주거상태 등의 인구 사회학적인 자료는 면접 조사를 통해 수집된다.

약 5,200개 표본가구를 조사 대상으로 월별 자료가 수집되므로 연간 자료에는 한 가구의 12회에 걸친 소득 및 소비지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소비지출에는 식료품비, 주거비, 피복 및 신발, 보건 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 통신비 등이 포함된다. 피복 및 신발은 다시 의의, 스웨터·셔츠, 내의, 직물·실, 기타 피복, 신발, 피복 및 신발 서비스 등의 하위 비목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하위 비목은 보다 구체적인 상품 비목(예: 잠바, 코트 등)으로 세분되어 자료가 제공된다. 이 자료는 국내 가계소비지출에 관한 가장 상세한 조사 자료로서, 선행연구 논의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 지출 행태 연구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경제 위기 전·직후·이후 회복기로 구분한 세 시기의 피복비 지출행태를 살펴보기 위해서 1994년, 1996년(경제위기 전), 1998년(경제위기 직후 불황기), 2000년(경제위기 이후 회복기)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런데, 1994년과 1996년 자료에는 자영업 가계의 가계소득이 조사되지 않았으며, 1998년과 2000년에는 자영업 가계소득이 조사되어 있으나 추정치로서 정확성이 떨어진다. 이에 따라 자영업 가계는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 가계의 자료만 분석에 사용되었다. 각 연도 자료의 표본 수는 각각 38,127(1994년), 38,823(1996년), 35,205 (1998년), 33,064(2000년)이다. 소득계층별 피복비 지출 행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가계소득을 기준으로 상(상위 30%)·중(중간 40%)·하(하위 30%)의 세 소득계층별로 나누었다. 그리고 소득 및 소비 지출액은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를 적용하여 2000년도 불변가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다(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소비자물가지수가 100일 때, 94년 지수는 78.8, 96년은 86.4, 98년은 97.0이다).

3. 분석 방법

기술통계분석을 통하여 시기별(경제위기 이전, 경제위기 직후 불황기, 이후 회복기) 및 소득계층별로 피복비 지출 행태 변화를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세 측면에서 분석이 이루어졌다.

- ① 피복비의 절대적 및 상대적(가계 소득 및 소비 중의 피복비 비중) 지출 변화
- ② 피복비와 다른 항목(식료품비, 외식비, 주거비 등)의 지출 변화 비교
- ③ 피복비 세부 비목(외의, 내의, 신발 등)의 지출 변화 비교

IV. 연구 결과

1. 피복비 지출 변화

시기별(경제위기 이전, 경제위기 직후 불황기, 이후

회복기) 피복비 지출 행태 변화는 먼저 전체 가계에 대하여 살펴본 후, 다시 소득계층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전체 가계의 경우

전체 가계의 피복비 지출 행태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절대액의 변화를 보면 소득, 총소비지출, 피복비 지출 모두 1996년에 증가하였다가, 1998년에는 감소하였으며, 2000년에 다시 증가하여 동일한 증감 패턴을 보인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감의 정도는 서로 다르다. 소득의 경우는 1998년에 감소한 후 2000년에 증가하였으나 경제위기 이전 수준만큼은 회복되지 않았다. 이에 비하여 총소비지출은 1998년에는 감소하였으나 2000년에는 대폭 증가하여 경제 위기 이전인 1996년과 거의 같은 수준(1996년 1,613천원; 2000년 1,611천원)으로 나타났다. 피복비 지출의 경우는 경제위기 전인 1996년에 비하여 1998년에 39.4% 감소하여 소득(11.5%)이나 총소비(14.2%)에 비하여 감소폭이 매우 컸다. 2000년의 증가폭(27.3%)도 소득(8.2%)이나 소비(20.0%)의 증가폭 보다 컸으나 이전의 감소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경제 위기 이전 수준만큼 회복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소득과 소비에 대비한 피복비 지출 증감폭의 차이는 소득과 소비에 대한 피복비 지출 비중 변화를 보면 더욱 뚜렷이 알 수 있다. 소득에 대한 소비 비중은 1998년 경제 위기 직후 약간 감소하였다가 2000년에는 큰 폭으로 증가하여 경제 위기 이전보다 높아졌다. 하지만 소득에 대한 피복비 비중을 보면 경제 위기 직후인 1998년에 급격히 감소한 후, 2000년에 다소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경제위기 이전보다는 낮다. 다음으로 총소비지출에 대한 피복비 비중 변화를 보면, 경제 위기 이전에는 소비자들이 총소비의 7.3%를 피복비로 지출하였으나 경제 위기 직후에는 5.3%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소득이 거의 회복되고 총소비지출이 경제 위기 이전과 유사하던 2000년도 피복비 지출은 경제 위기 직후와 비슷한 수준인 총소비의 5.5%에 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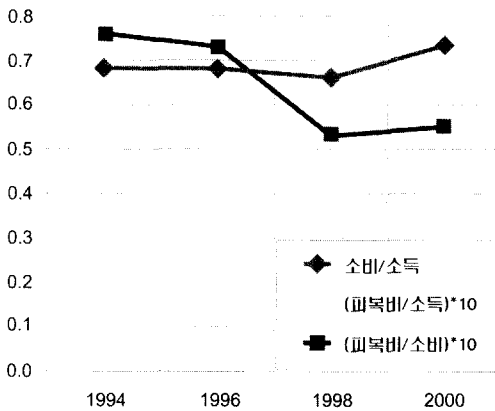
이러한 소득 및 소비에 대한 피복비 비중의 변화 행태는 경제 불황기에는 피복비 지출이 급격하게 하락하지만 경제 회복기에는 완만하게 증가함을 나타낸다. 따라서 피복비 지출에는 소득 증가할 때와 감소할 때의 지출 변화가 동일하지 않은 “소비의 비가역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일반적으로 소비의 비가역성이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일단 높아진 소비

<표 2> 전체 가계의 피복비 지출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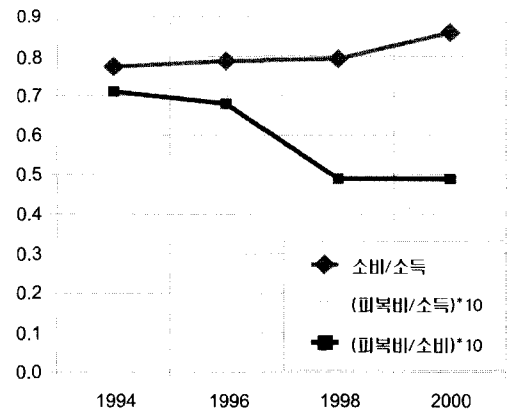
구분	항목	1994년	1996년	1998년	2000년
평균값 (천원)	소득	2,136(1,001)	2,494(1,187)	2,207(1,290)	2,388(1,380)
	총소비	1,420(709)	1,613(848)	1,335(675)	1,611(787)
	피복비	106(79)	120(106)	72(65)	92(81)
비중	총소비/소득*	.682(.248)	.681(.272)	.661(.490)	.733(.422)
	피복비/소득	.051(.032)	.051(.038)	.035(.066)	.041(.026)
	피복비/총소비	.076(.041)	.073(.043)	.053(.033)	.055(.031)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 비율로 표시된 것은 모두 개별 가구의 비율을 구한 후 그것의 평균값을 제시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피복비/소득은 각 가구의 피복비/소득 비율을 구한 후 이 가구별 비율의 평균을 구한 것이다. 이는 각 가구의 피복비 평균값과 소득의 평균값을 구한 후 그것의 비율을 구한 것과는 값이 다르다.



<그림 1> 전체 가계의 피복비 지출 형태



<그림 2> 하위소득계층의 피복비 지출 형태

수준은 소득이 감소해도 쉽게 낮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에 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급격히 낮아진 피복소비수준이 소득이 증가해도 쉽게 원래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음을 뜻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비록 상반되는 경우이지만, 소득의 증가할 때와 감소할 때의 소비 변화 정도가 다르다는 의미에서는 서로 동일하다).

한편 이와 같은 전체 가구의 피복비 지출 변화 행태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래프로 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2) 소득 계층별 피복비 지출 형태

(1) 하위소득층의 피복비 지출 형태

소득을 기준으로 하위 30%에 해당하는 하위소득 계층의 피복비 지출행태는 <표 3>과 같다. 앞에서 본 전체 가계에 대한 경우와는 달리, 하위소득계층에서는 경제위기 직후 소득에 대한 총소비지출의 비중은

감소하지 않았다. 이는 하위소득계층에서는 지출의 대부분이 기본적인 소비지출이기 때문에 다른 계층과 같이 소득이 감소한 만큼 소비지출을 감소하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피복비 지출 변화는 이러한 총소비지출 변화와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 소득에 대한 피복비지출 비중은 경제위기 직후인 1998년에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2000년에도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이는 피복비가 하위소득계층의 경우 소득 감소에 따라 소비를 줄여야 할 때 다른 항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지출을 줄일 수 있는 항목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피복비 지출의 특성은 소비지출에서 피복비가 차지하는 비중에서도 알 수 있다. 총소비지출에서 피복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 위기 전인 1996년에는 6.8%였으나 1998년과 2000년에는 4.9%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하위소득계층의 피복비 지출 형태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표 3> 하위소득계층의 피복비 지출 행태

구분	항목	1994년	1996년	1998년	2000년
평균값(천원)	소득	1,182(264)	1,316(298)	1,115(267)	1,203(293)
비중	총소비/소득	.773(.260)	.788(.311)	.793(.827)	.860(.422)
	피복비/소득	.055(.037)	.054(.043)	.040(.114)	.043(.031)
	피복비/총소비	.071(.043)	.068(.045)	.049(.034)	.049(.030)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표 4> 중간소득계층의 피복비 지출 행태

구분	항목	1994년	1996년	1998년	2000년
평균값(천원)	소득	1,953(259)	2,261(323)	1,977(287)	2,144(318)
비중	총소비/소득	0.671(.232)	0.666(.265)	0.638(.203)	0.725(.205)
	피복비/소득	0.051(.031)	0.050(.037)	0.034(.024)	0.041(.024)
	피복비/총소비	0.077(.040)	0.074(.041)	0.052(.031)	0.055(.029)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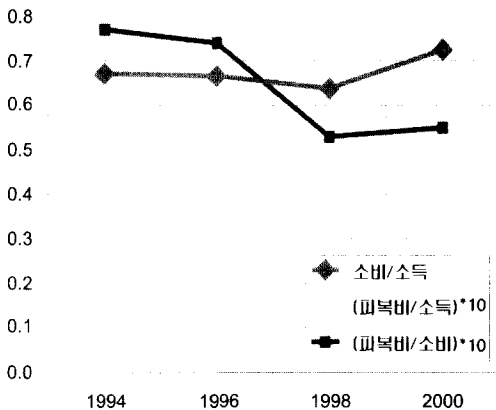
(2) 중간소득계층의 피복비 지출 행태

소득을 기준으로 중간 40%에 해당하는 중간소득 계층의 피복비 지출행태는 <표 4>와 같다. 소득의 절대값을 보면 2000년에도 외환위기 이전으로 회복되지 못하였다. 소득에 대한 총소비지출의 비중을 살펴보면 1998년에는 다소 감소하였다가, 2000년에는 크게 증가하여 외환위기 이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 계층과 마찬가지로, 소득에 대한 피복비지출 비중은 경제위기 직후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2000년에도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 이는 피복비가 중간소득계층에서도 소득 감소에 따라 소비를 줄여야 할 때 다른 항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지출을 줄일 수 있는 항목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피복비 지출의 특성은 소비지출에서 피복비가 차지

하는 비중에서도 알 수 있다. 총소비지출에서 피복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 위기 전인 1996년에 7.4%에서 1998년에는 5.2%로 크게 감소하였다가, 2000년에는 5.5%로 다소 증가하였다. 중간소득계층의 피복비 지출 행태 추이는 <그림 3>과 같이 나타난다.

(3) 상위소득계층의 피복비 지출 행태

소득을 기준으로 상위 30%에 해당하는 상위소득 계층의 피복비 지출행태는 <표 5>와 같다. 상위소득계층의 소득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는 감소하였으나, 2000년에는 회복되어 외환위기 이전 수준보다 더 높았다. 소득에 대한 총소비지출의 비중을 살펴보면 1998년에는 감소하였다가, 2000년에는 증가하여 외환위기 이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득에 대한 피복비지출 비중은 경제위기 직후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2000년에도 경제위기 직후보다는 다소 증가되었으나 여전히 경제 위기 이전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이는 다른 계층과 마찬가지로 피복비가 상위소득계층에서는 소득 감소에 따라 소비를 줄여야 할 때 다른 항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지출을 줄일 수 있는 항목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피복비 지출의 특성은 소비지출에서 피복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총소비지출에서 피복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경제 위기 전인 1996년에 7.5%에서 1998년에는 5.7%로 크게 감소하였다가, 2000년에는 다소 증가하였지만 여전히 6.2%로 경제 위기 이전보다 상당히 낮다. 이러한 상위소득계층의 피복비 지출 행태 변화를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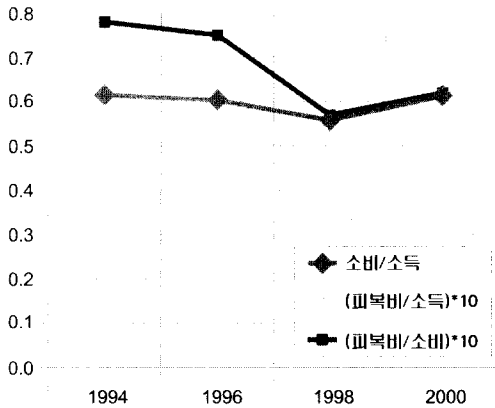


<그림 3> 중간소득계층의 피복비 지출 행태 그래프

<표 5> 상위 소득 계층의 피복비 지출 형태

구분	항목	1994년	1996년	1998년	2000년
평균값(천원)	소득	3,334(888)	3,873(1,036)	3,627(1,468)	3,946(1,510)
비중	총소비/소득	0.615(.195)	.603(.204)	.558(.182)	.613(.188)
	피복비/소득	0.048(.028)	.047(.032)	.033(.023)	.037(.022)
	피복비/총소비	0.078(.040)	.075(.041)	.057(.033)	.062(.031)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그림 4> 상위 소득 계층의 피복비 지출 형태 그래프

래프로 나타내면 <그림 4>와 같다.

이상에서 분석한 소득계층별 피복비의 지출 행태를 정리하면, 경기변동에 따른 피복비 지출 행태는 소득계층에 따라 별로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소득계층에 따라 경기불황 및 회복기의 소득 또는 소비의 증감 정도는 서로 달랐다. 하지만 피복비 지출행태는 유사하게 나타나서, 상·중·하 세 소득계층에서

모두 경제 위기 직후 감소하였다가 회복기에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는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의 원인을 명확하게는 알기는 어렵다. 하지만 필수재로서는 물론이고 사치재로서의 특성도 모든 소득 계층에 해당된다는 피복비의 고유한 특성이 중요한 작용을 한 것으로 짐작된다. 가령 사치재로서의 특성이 소득상위계층에게만 적용되고 소득하위계층에는 필수재로서의 특성만 적용된다면, 소득상위계층과 소득하위계층의 피복비 지출 행태는 크게 달랐을 것이다.

2. 피복비와 다른 소비 항목의 지출 행태 비교

위에서 살펴본 피복비의 지출 행태가 피복비만의 독특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소비 지출 항목에서도 유사한 지출 행태가 나타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주요 소비지출 항목의 변화를 살펴보았다(표 6).

<표 6>에 제시된 여러 항목의 지출패턴은 피복비와 다르게 나타났다. 식비의 경우 94-98년에 감소추세를 보이고 98-2000년에는 다소 증가하는 패턴은 피복비와 유사하나, 94-96년의 감소폭이 96-98년보

<표 6> 소비 항목별 지출 형태

구분	항목	1994년	1996년	1998년	2000년
평균값(천원)	월평균총소비*	1,420(709)	1,613(848)	1,335(675)	1,611(787)
비중	피복비/총소비	0.076(0.041)	0.073(0.043)	0.053(0.033)	0.055(0.031)
	식비/총소비	0.321(0.092)	0.307(0.089)	0.294(0.085)	0.297(0.077)
	외식비/총소비	0.091(0.062)	0.103(0.062)	0.093(0.055)	0.120(0.051)
	주거비 ¹⁾ /총소비	0.039(0.065)	0.038(0.063)	0.037(0.063)	0.034(0.054)
	가사용품비 ²⁾ /총소비	0.045(0.047)	0.041(0.047)	0.036(0.044)	0.034(0.038)
	교육비/총소비	0.080(0.084)	0.090(0.095)	0.094(0.100)	0.099(0.094)
	교통·통신비/총소비	0.108(0.101)	0.115(0.098)	0.144(0.081)	0.157(0.089)

괄호 안의 수치는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¹⁾ 주거비는 월세, 주택 수선비, 공동주택 관리비를 포함한다.

²⁾ 가사용품비는 가구, 가정용기기, 식기주방용품, 가사잡화, 세제와 같은 가사소모품, 침구 및 직물제품, 가사서비스비를 포함한다.

다 더 크게 나타나서 96-98년의 감소폭이 더 큰 피복비와는 달랐다. 기존 문헌에서 경제위기 이후 피복비와 함께 소비를 줄인 대표적인 항목으로 알려진 외식비의 경우 96-98년에 감소하였으나 감소폭은 피복비보다 작다. 또한 회복기인 98-2000년을 살펴보면 피복비는 증가의 폭이 매우 작았으나, 외식비의 경우 급격히 증가하여 경제위기 이전보다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그리고 가사용품비와 주거비는 94-2000 기간 동안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교육비와 교통·통신비는 94년부터 2000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교통·통신비는 매우 빠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주요 소비 항목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전체 소비에서의 비율이 경제위기 직후 대폭 감소한 후 회복기에도 거의 증가하지 않은 것은 피복비만의 독특한 지출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3. 경제위기 전후 의류 비목별 피복비지출 행태

경제위기 이전, 경제위기 직후의 불황기, 이후의 회복기의 세 시기와 상·중·하의 세 소득계층별로 피복비 지출의 세부항목(외의, 스웨터/셔츠, 내의, 신발)의 지출변화는 서로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전체 피복비 지출액에서 각 비목별 피복비 지출액의 비(ratio)를 살펴보았다. 먼저, 전체 소비가계의 의류 비목별 피복비지출 행태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상·중·하의 세 소득계층별로 피복비 지출 행태를 살펴보았

다. 전체 가계의 피복비지출 변화는 <표 7>과 같다.

<표 7>의 결과는 경제위기 전후의 지출행태 변화가 피복비의 세부 비목별로 다소 차이를 보여 준다. 외의, 스웨터/셔츠, 내의, 신발의 네 비목 중에서 외의의 경기변동에 따른 지출 변화폭이 가장 크며, 내의가 가장 작았다. 외의의 경우 경제위기 이전 소득 증가 시기인 94-96년에는 가장 큰 폭으로 증가(16%)하였다가, 경제위기 직후인 98년에는 가장 큰 폭으로 감소(44%)하였으며, 다시 경제회복기인 2000년에는 가장 큰 폭으로 증가(34%)하여 비목 중에서 소득 증감에 가장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각 시기의 내의 지출액 변화를 살펴보면 각각 7% 증가, 29% 감소, 22% 증가로 나타나서 다른 비목에 비하여 소득 증감에 덜 민감하였다.

이와 같은 경기 변동에 따른 피복비 세부 비목별 지출 변화 행태는 각 비목의 피복비 지출에 대한 비중변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표 8>에 제시되어 있다.

세부 비목별 지출 비중을 살펴보면 특히 외의의 비중이 외환위기 직후 급격히 감소하였고, 회복기인 2000년에도 회복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에 스웨터와 셔츠의 비중은 외환위기 직후에 급증하였고, 2000년에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외환위기 이전보다는 높은 편이다. 내의의 경우도 외환위기 전후 증가하여 2000년에도 같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는 스웨터와 셔츠, 내의류처럼 가격이 높지 않고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복인 경우 소득이 감소한다

<표 7> 의류 비목별 피복비 지출 변화

비목	절대값(천원)				변화율		
	1994년	1996년	1998년	2000년	94-96년	96-98년	98-2000년
총피복비	106	120	72	92	0.13	-0.40	0.28
외의	61.8	71.7	39.9	53.3	0.16	-0.44	0.34
스웨터/셔츠	15.2	16.2	11.2	14.0	0.07	-0.31	0.24
내의	6.1	6.5	4.6	5.6	0.07	-0.29	0.22
신발	13.6	14.9	8.9	11.3	0.10	-0.41	0.28

<표 8> 전체 가계의 피복비지출 중 비목별 지출 비중

비목	1994년	1996년	1998년	2000년
외의	.531(.202)	.534(.189)	.481(.203)	.520(.179)
스웨터/셔츠	.152(.101)	.147(.108)	.162(.121)	.159(.103)
내의	.069(.067)	.069(.076)	.078(.079)	.078(.082)
신발	.148(.115)	.145(.109)	.150(.090)	.139(.105)

고 해도 기본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목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다른 비목에 비해 비교적 가격이 높은 외의의 경우 경제위기 직후 총피복비에서의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2000년에 다소 회복되었으나 여전히 경제 위기 이전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어서 경제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경제위기 이전, 직후의 불황기, 이후 회복기를 거치면서 나타나는 피복비 지출 행태를 ① 피복비의 절대적 및 상대적(가계 소득 및 소비 중의 피복비 비중) 지출 변화; ② 피복비와 다른 주요 지출 항목의 지출 변화; ③ 피복비 세부 비목의 지출 변화의 세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위기 직후 불황기의 피복비지출 감소는 소득이나 총소비지출 감소보다 더 심했던 반면에, 회복기의 증가 수준은 소득이나 총소비지출보다 작아서 경제 위기 이전 수준만큼 회복되지 못하였다. 이는 피복비가 소득 감소에 따라 소비를 줄일 필요가 있을 때, 다른 소비항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지출을 감소시킴으로써 소득과 소비의 균형을 맞추어 주는 조절항목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피복비는 소득이 감소할 때는 급격하게 감소하나, 소득이 회복될 때는 서서히 증가함으로써 소득에 대하여 소비가 비가역적인 특성을 나타냈다. 이는 일반적인 경기변동인 경우 경제 침체기에서 경기 회복기로 전환해도 소비자들은 감소했던 피복비 지출을 서서히 늘린다는 기존 연구(지혜경, 이은영, 1999)의 결과와도 유사하다. 따라서 이러한 피복비 지출 특성은 경기변동의 기간이나 강도에 상관없이 동일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피복비의 지출 행태는 상·중·하 소득 계층별로도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즉, 모든 소득계층에서 경제 위기 직후 감소하였다가 회복기에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경제위기 전 수준으로는 회복되지 못하였다.

둘째, 다른 주요 소비항목의 지출과 비교해 보면, 경제위기 직후 지출이 대폭 감소한 후 회복기에도 별로 증가하지 않은 것은 피복비만의 독특한 지출 패턴으로 나타났다. 경제위기 이후 피복비와 함께 소비를

줄인 대표적인 항목으로 알려진 외식비의 경우에도 피복비와 유사한 추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경제위기 직후 감소폭은 피복비보다 작았던 반면에 회복기의 증가폭은 훨씬 컸다.

셋째, 피복비 지출을 세부비목별로 살펴보면, 소득 증감에 따른 지출의 증감 정도는 외의가 가장 심하였으며, 내의가 소득 증감의 영향을 가장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규명한 내용들은 경기변동에 따른 피복비 지출 행태 변화를 이해하는 데 일조를 한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이를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밝혀진 내용들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첫째, 2000년 이후의 시기로 연장한 시계열 자료의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피복비 지출은 경제 회복기인 2000년에도 경제위기 이전만큼 회복되지 않았다. 따라서 경제위기로 인하여 감소된 피복비 지출이 얼마만큼의 시간이 경과해야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복귀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2000년보다 연장된 시계열 분석이 필요하다.

둘째, 피복비 지출행태에서 나타난 소비의 비가역성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이러한 행태가 존재함을 보였지만, 그 원인을 규명하지는 못하였다. 이의 규명을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개방형 설문조사나 인터뷰와 같은 정성적인 방법을 이용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경제 위기 이후 의류가격의 변동이 피복비 지출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경기변동에 따른 피복비 지출 변화의 이유를 가계소득의 변화 측면에서만 살펴보았다. 그러나 소비지출 행태는 소득 이외에 제품의 가격에 의해서도 변한다. 따라서 소득 변화와 함께 의류가격 변화를 분석에 포함한다면, 경기변동에 따른 피복비 지출 행태를 보다 타당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박인숙, 송영숙, 김경애. (1999). 경제적 위기가 가정생활에 미친 영향-IMF관리체제 전후의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1), 121-137.
- 김수경, 류은정, 임숙자. (1998). IMF 영향도와 주관적 사회계층에 따른 대학생의 의복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 의류학회지*, 22(8), 990-1000.

- 김영숙, 왕인숙. (1989). 도시가정의 피복류 소비지출분석. *대한가정학회지*, 27(4), 21-39.
- 두경자. (1999). IMF 관리체제 이전·이후의 가계소비수준 회복정도와 영향변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4), 87-97.
- 박광희, 배미경. (1997). 지위일치, 불일치 유형에 따른 피복비 지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4), 1-13.
- 배미경, 박광희. (1997). 도시가계의 피복비 지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1), 415-428.
- 소연경. (2000). 도시가계의 소득계층별 소비지출구조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12), 1-14.
- 양지연, 사공수연, 박경애. (2001). 소비자의 경제위기의식과 애국심이 외제품 구매행동에 미치는 영향: 1998년 우리나라 경제위기 상황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5(2), 228-236.
- 유두련. (1991). 가정생활환경의 변화와 소비자문제. *소비자학연구*, 2(2), 41-54.
- 이종성. (1998). IMF 이후 가계 소비생활의 변화와 특징. *소비자문제연구*, 21, 55-74.
- 정수진, 이은영. (1997). 우리나라 소비자의 피복비 지출구조 변화양상과 결정요인에 대한 종적연구(제1보). *한국의류학회지*, 21(5), 889-902.
- 정인숙, 송요숙, 김경애. (1999). 경제적 위기가 가정생활에 미치는 영향-IMF 관리체제 전후의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1), 121-137.
- 지혜경, 이은영. (1999). 경기변동에 따른 소비자의 피복소비 지출 특성. *한국의류학회지*, 23(5), 745-756.
- 한국소비자보호원. (1999). *IMF 체제 전후의 소비의식 및 형태 비교*. 서울: 한국소비자보호원.
- 한국의류산업협회. (1998. 3). *'98년 의류 산업의 전망*. 서울: 한국의류산업협회.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2004). *2003년 의류 소비 실태 조사 보고서*. 서울: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Park, S. & Widdows, R. (2001). Korean households' clothing expenditures by categories. *Clothing and Textiles Research Journal*, 19(1), 1-10.
- Shim, S. & Cho, P. G. (2000). The impact of life events on perceived financial stress, clothing-specific lifestyle, and retail patronage: The recent IMF economic crisis in Korea. *Family and Consumer Science Research Journal*, 29(1), 19-47.